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3.4. ~ 3.10.)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출 15 - 21	눅 18 - 24
	개인	욘 34 - 39	고후 3 - 9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은혜(4)		
	<p>로마서 11장 5-6절</p> <p>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p>		



고린도후서 3장 / 새 언약의 일꾼

개 요

1-11 새 언약의 일꾼

12-18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고린도교회에는 바울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절).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고린도교회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합니다(2절).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3절).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으며, 그것은 돌에 쓴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므로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4-11절). 그러므로 사도는 소망 안에서 담대히 말합니다(12절).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13-18절).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증거로 고린도교회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기초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3월 5일(화)

출16

눅19

욘34

고후4

고린도후서 4장 / 보배 담은 질그릇

개요

1-6 진리를 나타냄

7-18 보배 담은 질그릇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이어갑니다. 그가 받은 직분으로 인해 그는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1,2절). 그가 나타내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3-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냅니다(7-11절). 그 생명의 역사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12-15절).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바울은 영원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16-18절).

곧 낡아질 건강이나 능력, 지위 등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겉사람으로 인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돌리는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3월 6일(수)

출17

눅20

욘35

고후5

고린도후서 5장 /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사는 삶

개요

1-10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11-21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육체(장막 집)가 무너지면 신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1절).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2-7절). 그렇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힘 씁니다(8-10절). 또한 주를 경외함으로 삽니다(11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니다(12-17절).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18-21절).

신자의 모든 동기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아, 복음으로 죄인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죄인을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 하나님의 성전**개요**

1-10 하나님의 은혜

11-18 하나님의 성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합니다(1절). 그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사람으로서 고린도교회에 말합니다(1-4절). 그는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덮어두고 약함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합니다(4-10절). 그 은혜로 인해 신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10절).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11-13절). 또한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14-18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약함은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7장 / 회개의 소식**개요**

1-16 회개로 인한 기쁨

바울은 거룩함을 이루자는 권면을 하면서, 위로와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1-4절).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난을 당할 때, 디도가 와서 고린도교회의 위로와 회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5-7절). 바울이 권면함으로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8-12절). 바울에게 이 소식은 위로와 자랑이며, 기쁨이었습니다(13-16절).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근심에 빠질까봐 걱정했으나, 회개하여 깨끗함을 지킨 일로 인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교회가 정결함을 지켜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의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가 무엇보다 깨끗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8장 / 연보의 책임**개요**

- 1-7 마게도냐 교회의 본
- 8-15 그리스도의 본
- 16-24 연보의 책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많은 연보를 하였습니다(1-3절). 이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4절).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물질을 바치는 본을 보였습니다(5절). 그러므로 풍족한 고린도교회는 이 연보의 섬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면합니다(6,7절).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입니다(8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9-15절).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들,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어 연보하도록 합니다(16-24절).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고귀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가진 풍족함으로 연보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낮아짐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형제를 위해 섬기는 일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넘치는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연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눅 7:47).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삶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3월 10일(주일)

출21

눅24

욥39

고후9

고린도후서 9장 /

개요

1-5 연보 준비

6-15 너그럽고 후한 연보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자발적으로 연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그 마음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1-4절).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을 보내어 작성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5절). 연보는 자원함으로 하되,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해야 합니다(7,8,11,13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8,10절). 또한 그로 인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13절).

연보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봉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연보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발휘해 체계적으로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고린도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상처 받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힘씁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제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과 함께 나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순모임

우상숭배(2)

가장 근본적인 죄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 (롬1:18-25)

1.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1절)
2. 본문에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23,25절)
3.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하십니까?(18절)

1답.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을 주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합당한 감사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2답.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거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23절).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고, 그것을 가치로 삼아 그 위에 삶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애정을 피조물에 쏟습니다(25절).

3답.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외시하는 것들을 가리키며, 불의는 사랑, 진리, 정의 등 사람의 권위를 도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들에 사람들을 내버려두십니다(24절).

4.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영구적인 이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과 경력
- 외모와 이미지
- 가족
- 연애
- 재물

이것들은 아주 흔한 이상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이상

무엇이든 이상이 될 수 있다. 직업, 가정, 신체적 매력, 로맨스,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등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당신의 삶 속에 이상숭배가 있는지 보여주는 증상은 무엇일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가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상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빼앗겼을 때 삶의 의욕마저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것이 이상이다. 로마서 1장 18-25절은 이상숭배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상은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이다.

마틴 루터는 “모든 죄의 행위 밑에는 이상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이상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상들이 당신의 목살을 잡고 마음을 지배할 때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는 것들이 힘을 잃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안식할 때만이 당신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5. “모든 죄의 행위 밑에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 모든 우상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이유도 함께 말해보세요.
6.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시 115:8, 우리말성경)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를 형상화하고 반영하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세상의 피조물이든 무엇인가를 반드시 반영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들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헌신한다면 그들을 항상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공허할 것이다. 그들이 헌신한 대상이 생명이 없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눈과 귀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 헛된 우상에 자신을 바칠 때 우리 삶은 헛되고 텅 빌 것이다. - 그레고리 비일,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우상을 닮은 사람의 이야기 또는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

7.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이며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며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 순종한다
- 받아들인다
- 의지한다
- 기대한다

5답. 루터는 우상에 대한 구약성경이 금지하는 율법과 신약성경의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심을 믿지 않는 것 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제1계명, 즉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만일 당신이 공로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한다. 왜 그럴까? 율법을 어기는 근본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만약 세 번째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를 어겼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이미 어겼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로 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생각하는 어떤 것 -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인정이든지 통제든지 - 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소망과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죄 아래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는 죄와 자기 구원에 탐닉하는 죄가 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한다(골 3:5). ‘악한 정욕’은 ‘격렬한 또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한다. 바울은 ‘당신의 마음의 과도한 욕망을 죽이라. 그것은 우상숭배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피조물에 신뢰를 둘 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들이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지라도, 과도한 갈망과 감정적인 애착을 만들어 낸다. 바울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골 3:2,3)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 사용에 대한 전략을 얻는다. 격렬한 분노, 두려움, 낙담 또는 다른 과도한 감정에 시달릴 때에, 그 감정들 아래에 숨은 우상을 찾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변화의 가능성은 오직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뻐하는 것 뿐이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의 가장 큰 대상이 될 때만 우리

는 변화할 것이다. 누구도 의지를 통해 바꿀 수 없다. 복음 외에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7답.

- 순종한다

말씀에 나타난 하난미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지킨다.

-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요나이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나 그의 나라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이유를 모르 때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 평가 질문: “내 의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가?”

-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시련이나 고통을 받아들인다.

- 받아들이지(순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로는 욥을 들 수 있다. 그는 하나님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고통을 통해 아무런 선한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가 당신의 길에 보내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복종해야 한다.

- 평가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해한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이것은 하나님이 비극 주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에서 항상 지혜롭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 의지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헌신, 충성심, 신뢰, 사랑에 대한 대상이다.

-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이다. 그는 이삭을 우상으로 삼는 유혹에 빠졌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이삭이 될 수 있었다.

-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당신은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 평가 질문: “내가 이 분야에서 나의 희망과 삶의 의미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기대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자원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한다.

-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못한 예로 모세가 있다. 그는 소명을 받았을 때, 무능력감으로 인해 즉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 평가 질문: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기에 너무 큰 문제나 제약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